



“노래할 때 가장 행복 20년은 끄떡 없어요”

내년 정규 17집 발매... 가수 이문세

“공연을 준비하거나 앨범을 만들 때 기타를 잡고 열심히 노래하니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집중할 일이 있다는 게 자랑할 힘이 됩니다.” 가수 이문세는 13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정규 17집 제작발표회에서 “앞으로 20년은 끄떡없이 (음악을) 할 생각”이라며 “박수 쳐주는 사람이 객석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마이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은퇴 공연은 하지 않는다는 게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랜 기간 음악을 할 수 있는 비결로 “다른 부업이나 사업을 하지 않고 음악만 하는 단순한 사고”라며 “복잡하지 않은 삶 덕분이다. 나는 이완과 집중을 비교적 잘 지키는 아티스트”라고 말했다.

이문세는 이날 내년 발매할 17집 수록곡 ‘이별에도 사랑이’와 ‘마이 블루스’를 선공개했다.

‘이별에도 사랑이’는 연인과의 이별을 넘어 인생에서 겪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다양한 이별을 떠올리게 하는 발라드다.

‘마이 블루스’는 가수로 긴 시간을 살아오며 느낀 감정과 상황이 솔직하게 담긴 노래로, 이문세가 작사·작곡했다. “인생은 가는 거 / 누구나 가는 그 길 / 꽃잎 하나 떨어지네... 박수 한 번은 받아봤으니까 / 내 인생 끝이어서 난 좋아”라는 가사에는 목가적인 일상과 무대 위 삶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이문세의 진솔한 마음이 묻어난다.

그는 ‘이별에도 사랑이’에 대해 “4분의 3박자 편안한 왈츠 리듬에 실은 내 마음을 가을

하늘에 푹 던지고 싶은 노래”라고 소개했다. 또 ‘마이 블루스’ 가사를 인용하며 “대중에게 박수 크게 받았으니 내 인생에서 밟질 것은 없었다. 여한이 없다”고 노래 인생을 돌아봤다.

1978년 CBS ‘세븐틴’ MC로 연예계에 데뷔한 이문세는 1983년 1집 ‘나는 행복한 사람’을 내고 본격적으로 가수 활동을 시작했다.

이문세는 17집 발매 전 수록곡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팬들의 요청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씨어터 이문세’ 투어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그는 “춤 욕심이 있다. 춤만 잘 쳤다면, 17집 타이틀곡을 댄스곡으로 해서 나이 예순 중반에 비(정지훈)처럼 춤을 추는 게 꿈이죠. ‘춤’이라며 ‘춤이란 제게 도전하고 싶은 장르’다. 제가 춤은 비보다는 못 추겠지만, 60대에 비가 과연 저처럼 건강할 수 있겠느냐”며 너스레도 떨었다.

가수뿐만 아니라 ‘별이 빛나는 밤에’ ‘오늘 아침 이문세입니다’로 라디오 DJ로도 이름을 날린 그는 올해 6월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로 13년 만에 라디오에 복귀했다.

이문세는 “이문세와 라디오라는 세 글자는 떼어놓을 수 없는 함수 관계”라며 “지는 라디오를 통해 성장했고, 라디오로 꽃을 피웠다. 수많은 청취자와의 교감을 통해 이문세는 지금도 박수를 받고 있다”고 라디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달 정규 20집을 낸 ‘가왕’ 조용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용필이 형님은 은퇴 공연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무대에서 있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존경스럽다”고 치켜세웠다.

“그분들(선배 가수)이 앞장서 가니 저도 뒷짐 지고 여유 있게 쫓아갈 수 있는 겁니다. 묵묵히 따라가는 저 같은 후배에게 일종의 용기를 주시는 것이지요.” /연합뉴스

“데뷔 후 40년 활동...팬 사랑 있어 가능”
‘이별에도 사랑이’ 등 2곡 선공개
지난 여름엔 13년만에 라디오 복귀도
‘씨어터 이문세’ 투어 내년까지 연장

그는 이후 ‘소년’, ‘난 아직 모르잖아요’, ‘사랑이 지나가면’,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옛사랑’, ‘평화로운 연가’, ‘붉은 노을’ 등 수많은 히트곡을 냈고 여전히 무대와 라디오 방송을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문세는 “마이크를 잡고 대중 앞에서 노래한 지 40년이 넘었다”며 “중간에 힘든 과정도 있었고, 넘어야 할 강과 산과 무릉도원도 있었다. 40년 이상 (대중의) 박수를 놓치지 않고 외면받지 않았기에 마이크를 잡을 수 있었다”고 떠올렸다.

그는 올해 펼친 시즌제 콘서트 ‘씨어터 이문세’를 연이어 매진시키며 여전히 탄탄한 파워를 과시했다. 이 공연은 히트곡 메들리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호평받았다.

우도환 “멜로 공포 싹~ 벗었습니다”

‘Mr. 플랑크톤’ 시한부 열연 호평

“제가 멜로(애정극) 공포증 같은 게 있었어요. 액션 연기는 정답이 있거든요. 그런데 멜로나 코미디 연기는 촬영 현장에서 설레거나 웃긴다고 해서 TV로도 똑같이 전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액션만 하던 내가 과연 멜로를 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넷플릭스 시리즈 ‘Mr. 플랑크톤’에서 주인공 해조 역을 맡은 배우 우도환(사진)은 1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구해줘’, ‘매드독’, ‘사냥개들’ 등에서 선 굵은 액션 연기를 주로 펼쳤던 우도환은 이번에 죽음으로 끝

나는 가슴 아픈 사랑을 연기했다.

극 중 해조는 시한부 판정을 받은 뒤 전 여자친구 제미(이유미 분)를 결혼식 날 납치해 전국을 누비는 인물이다. 설정만 보면 충동적이고 이기적이지만, 우도환은 처량해서 볼봐주고 싶은 캐릭터로 만들어냈다.

우도환은 “액션이 아니라 감정선으로 사랑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심지어 아버지가 (드라마를 보시고) ‘칭찬 스티커’도 주셨다”고 웃으며 말했다.

시리즈 말미에 눈발에서 함께 썰매를 타는 모습, 문 닫힌 편의점 앞에서 황당해하는 해조와 재미의 모습도 모두 이렇게 탄생한 자연스러운 장면들이다. /연합뉴스

5·18 민주광장서 ‘김치대전’

광주MBC 창사 기획... ‘같이김치’ 주제 22일, 1122명 김장 만포기 담그기 도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김장 문화’와 대한민국 대표 음식 ‘김치’를 글로벌 콘텐츠로 알리는 행사가 펼쳐진다. 김치의 날인 11월 22일을 맞아 5·18 민주광장에서 열리는 김치대전이 그것.

광주문화방송(사장 김낙근·광주MBC)과 광주시, 전남도 등이 공동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김치대전’이 오는 22일 오전 10시 5·18 민주광장에서 막을 올린다. 광주MBC 창사 60주년 특별기획으로 마련된 행사이며 ‘같이김치’를 주제로 1122명이 한 자리에 모여 김장 만포기 담그기에 도전한다.

참가자들은 절임배추 4200상자(4.6kg 기준)를 이용해 공동체 문화의 원형인 김장 문화를 재현하게 된다. 담근 김치는 우리 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해 공동체 문화를 되살린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24절기를 대표하는 김치 20여 종을 선보이는 전시회도 마련된다. ‘김치의 계절’ 전은 오이소박이, 무등산 수박깍두기를 비롯해 오방색김치 등 이색 김치를 만나는 자리다.

남도김치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김장 체험’ 섹션도 있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우즈베키스탄 등 30여 개국 외국인 대사 부부와 시민들이 국회 소통관에 모여 김장 문화를 체험한다. 끝으로 남성 듀오 ‘노라조’, ‘백엔싱어즈’ 등의 축하 공연도 예정돼 있다. (오후 2시부터 16개 지역 MBC 전 계열사 생방송)

광주MBC 김낙근 사장은 “연대와 나눔 정신을 실천하는 대한민국 김치대전”은 광주의 상징적인 공간인 ‘5·18 민주광장’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한다”며 “신선한 재료로 남도 김치를 함께 담그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최류빈 기자 rubi@

하하, 16년 만에 라디오 DJ

KBS ‘슈퍼라디오’ 25일 2시 첫방

방송인 겸 가수 하하(사진)가 16년 만에 라디오 DJ로 돌아온다.



KBS는 FM(89.1MHz) ‘뮤직쇼’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하하의 슈퍼라디오’를 신설하고 오는 25일 오후 2시 처음 방송한다고 13일 밝혔다.

하하가 라디오 DJ를 맡은 것은 2005~2008년 SBS ‘텐텐클럽’ 이후 16년 만이다.

그는 “무엇보다 오랜만에 라디오로 복귀하는 설렘이 생각보다 더 크다”며 “청취자에게 라디오를 통해 하하만의 ‘파이팅’과 ‘슈퍼 긍정 에너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KBS라디오 대표 브랜드 ‘볼륨을 높여요’의 새 DJ로는 걸그룹 ‘오마이걸’의 리더 효정이 발탁됐다.

‘볼륨을 높여요’는 1995년부터 시작된 KBS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이분, 메이비, 최강희, 유인나, 강한나 등 스타 DJ를 배출해왔다. 가장 최근에는 가수 청하가 DJ를 맡았다가 효정에게 baton을 넘겨주게 됐다.

효정이 진행하는 ‘볼륨을 높여요’는 25일 오후 8시에 처음 청취자들을 만난다. 두 방송 모두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앱) KBS 콩, KBS 플러스를 통해 들을 수 있다. /연합뉴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 등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대연건설 광주 동구 제봉로190번길 7-1 건설업·설비·토목 ☎ 062)236-1510, 010-2630-4820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인마의자, 식품화장품, 마사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	(주)대신수산유통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박당화랑 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화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관승 ☎ 062)222-6866	민생 경공매 연구소 광주시 북구 무등로 180번길 122층 경력 30년 대표 토목·건축·재개발 공부여합매 투자 총 40시간 수강료 200만원 (민법/중행법/행정법/기초의 기초~실전 유체동산 특강) ☎ 010-7638-6918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우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면쟁이 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 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 판매 우동모임,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영, 지압, 뜸, 마사지 가능 의리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파크랜드 광주 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2호 당신의 오늘을 위한 파크랜드. 가을, 겨울 신상품 50%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251, 010-8660-1557
도명 명리심리연구소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택일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광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작명,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예쁜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찰청담배러미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 등기 상임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풍어구이, 주물럭, 쌈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	光州日報		